

# ‘초등 전일제학교’ 광주·전남 실효성 논란

### 교육부, 내년 시범운영·2025년까지 모든 학교 확대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수요 66명 불과...급식 문제도

교육부가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초등 전일제학교’를 추진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늦은 시간 수요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

화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올해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오후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수요가 적어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

돌봄교실 대상자는 지난 4월말 기준 광주 5천914명, 전남 1만4천200여명이다. 이 중 오후 7시까지 수업을 듣는 학생은 광주 0명, 전남 6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오후 5-6시면 집으로 귀가해 늦은 시간까지 수요는 미미했다. 또한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수업을 한다는 언급이 부딪힐 전망이다.

정부는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현재 특기

적성, 예체능, 교과 중심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예체능 등으로 더 다양화된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고, 평가 대상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2024년 이후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자세한 지침이 하달되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기존 돌봄교실 수요를 보면 오후 5시 이후 수업 신청자들은 극히 적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임재만 기자

### 광산구, 아동신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신체·건강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영양교육과 함께, 축구교실, 볼링교실, 드림위킹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산산업보건센터를 시작으로 빛고을 국민안전 체험관, 신화FC, 하남볼링장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볼링교실과 드림위킹 프로그램을 마련,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을 높이며 화목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13일에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더파크 가족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옥근 기자



**세계요리 만들기** 여름방학을 맞아 9일 광주 동구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여름방학 특강-세계요리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강사와 함께 멕시코 요리인 ‘치킨브리토’를 만들고 있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여름방학특강은 세계요리교실, K-POP댄스, 웰튼기초, 창의 과학실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김예리 기자

#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규탄 성명 잇따라

###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현금화 동결’ 발언 관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더불어 민주당이 신임 주일한국대사의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9일 오후 윤덕민 주일한국대사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시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일본대사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

이라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4년이 넘도록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려 한국 대사가 일본의 편을 들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은 윤 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

됐음에도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을 내고 윤 대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고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3차 민관협의회’도 마련됐다.

시민모임은 제3차 민관협의회 개최에 대해 “가해자는 뒷집지고 있는 상

황에서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현금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민관협의회에 참여해왔던 피해자 지원 단체와 대리인마저 지난 3일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열리는 민관협의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 대사는 지난 8일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 특별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시 한·일 국민과 기업의 수십조,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에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대인 기자

###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은

인천	23/28
서울	23/30
춘천	23/30
대전	25/28
전주	26/27
목포	27/31
광주	26/31
홍산도	26/31
제주	28/35
강릉	23/29
대구	27/32
부산	26/31
여수	27/30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6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0:25	06:07
목포	20-30		12:21	17:58
순천	30-30			
여수	30-30	여수	07:26	01:44
			20:25	13:29

시간	지역	기온
오전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남서/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남-남서/0.5-1.0m
오후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남서/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남-남서/0.5-1.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11/목	(26/30)	(24/29)	(24/30)	(24/29)	(26/31)	(28/34)
12/금	(26/32)	(25/31)	(25/32)	(25/31)	(27/33)	(28/34)
13/토	(26/32)	(25/30)	(25/32)	(25/32)	(26/33)	(28/34)

▶날씨예보: 국번없0131

### 시교육청 ‘고등의회 역량 강화 캠프’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고흥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의회의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의회 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행동하는 학생시민으로!’라는 주제로 학생의회의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캠프는 ▲학생회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자치활동 경험과 사례 공유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도서관이 돼 관심 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책 도서관 ▲생존수영과 선상 탈출 등 해양 안전 프로그램 ▲학생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풍자하고 학생자치의 미래를 공언과 축제로 만드는 쇼미더저지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졸업한 선배와 만남, 교육감과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 삶과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임재만 기자

###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단행

전남도교육청이 9일 오는 9월1일자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원 등 38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명단 18면

이번 인사를 통해 교장·원장 180명, 교감·원감 94명이 승진·전직·전보됐으며, 장학관·교육연구관은 36명, 장학사·교육연구사는 72명이 전직·전보됐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9명, 초등 216명, 중등 157명이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핵심과제인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 단추를 꿴다는 이번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자의 희망과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역량있는 인사를 발탁했다.

특히, 이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전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했다.

주요 보직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 미래교육 전환, 청렴도 제고 등 전남교육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재만 기자

**대광새마을금고**

##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 원**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